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될까... 환경부 타당성 조사 착수

환경부, 내년 9월까지 타당성 조사
내년 상반기 현황 조사·의견 수렴
토지 소유주·주민 불편 해소 기대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의 타당성에 대한 환경부의 조사가 내년 9월까지 진행된다. 31일 경북도에 따르면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보고회가 지난 27일 대구 팔공산 시민안전테마파크에서 열렸다.

보고회에는 환경부, 경북도, 대구시 및 팔공산 관할 5개 시군구(영천, 경산, 군위, 칠곡, 대구 동구), 국립공원공단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앞으로의 조사 일정 등을 논의했다.

지난 5월 대구시와 경북도는 팔공산 도립공원 일원(125㎢)에 대한 국립공원 승격을 환경부로 공식 건의한 이후 지난 달 29일 시작된 팔공산 국립공원 지



팔공산

정 타당성 조사 용역은 내년 9월까지 진행된다.

올해는 조사 대상지의 자연·인문 환경과 토지이용 실태 등 현황을 파악하고 토지소유주, 공원 내 주민, 상인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현황 조사 및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국립공원 경계(안) 및 공원시설계획, 공원용도지구계획 등 공원계획(안)을 마련하게 된다.

국립공원 경계(안)은 현재의 팔공산 도립공원 경계를 바탕으로 국립공원 지

정기준과 맞지 않는 일부 지역은 조정될 수 있다.

대구 경북은 공원경계 및 계획 조정이 도립공원 내 토지 소유주와 주민 등의 불편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국립공원 경계(안)과 공원계획(안) 마련에 지역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역주민과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사이에서 적극적인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 주민의 부정적 인식과 우려를 해소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공원경계(안)과 공원계획(안)을 결정하면 이후 환경부는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지자체 의견청취, 관계 중앙부처 협의,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치게 된다.

권경수 경북도 환경정책과장은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추진을 위해서는 많은 관문이 남아있다. 지역이 상생하는 성공적인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관계 지자체가 전력을 다해 지역의견을 수렴하고 대변하겠다"고 말했다.

/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metroseoul.co.kr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누적 관람객 40만명 돌파 전남 해남 청정바다 '햇김' 생산 시작

61일간의 대장정 마무리
온라인 전시장 8만명 방문

2021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40만여명의 관람객을 동원하고 막을 내렸다.

광주디자인진흥원은 광주비엔날레관 등에서 펼쳐진 2021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31일 폐막식을 열고 61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광주 전역을 디자인 축제의 장으로 물들인 2021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누적 관람객 수 40만명을 기록했다.

'디-레볼루션' 주제작품이 전시된 광주디자인비엔날레관 등에는 관람객 5만여명이 찾아 작품을 직접관람했다. 또 코로나19 여파로 전시장을 찾지 못한 관람객을 위해 제공된 온라인 전시



'디-레볼루션(D-Revolution)' 주제의 2021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1일 오전 광주 북구 광주비엔날레관에서 작품을 공개하며 전시의 막을 올렸다. 국제관에 다양한 작품들이 설치돼 있다. 2021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10월31일까지 펼쳐진다. /뉴스시

장에는 8만여명이 방문했다.

온라인 전시관 관람객들을 위한 특별 이벤트는 4000여명이 참여했다.

특별전과 팝업 전시, 국제컨퍼런스 등을 포함하면 총 누적 관람객 수는 27

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1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코로나19에 대비한 온라인 전시관이 눈길을 끌었다.

/광주=김태수 기자

전년보다 9일 늦게 위판

김 작황 부진으로 높은 가격이 형성된 가운데 전남 해남 청정바다의 햇김 생산이 시작됐다. 31일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 25일 송지면 어란위판장에 이어 27일부터는 화산면 송평위판장에서 물김 위판이 시작됐다.

가격은 120kg 기준 포대당 36만8100원~43만2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1.5~2배가량 높은 가격에 위판이 이뤄졌다.

올해는 지난 9월까지 수온이 24도 안팎에서 정체되면서 김 작황이 좋지 않아 전년보다 9일 늦게 첫 위판이 시작됐다. 위판 척수도 적어 가격이 높게 형성됐다. 다만 10월 중순부터 수온이 예년 수준으로 회복됐고, 영양염 수치도 점

차 회복되고 있어 11월부터는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굳은 전망이다.

현재 생산되고 있는 물김은 조생종 잇바다돌김으로 염도가 곱창처럼 길고 구불구불해 일명 곱창김으로 불린다.

곱창김은 해황의 여건에 따라 생산량 변화가 심하고, 남해안 일대에서 10월 말부터 한달정도 짧은 기간 소량만 생산된다.

일반김에 비해 빛깔과 식감이 좋고, 풍미가 뛰어나 가격이 비싼 편이지만 단기간에만 맛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햇김을 기다려온 소비자에게 귀한 대접을 받고 있다.

해남군의 김양식은 올해 9607ha, 19만2,140척으로, 생산량 8만3000t, 660억원의 위판고를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남=김태수 기자 ts7080@

옛 여수 돌산중앙초, 공감쉼터로 재탄생

전남교육청 시범사업 첫 결실

폐교 뒤 14년 동안 방치됐던 여수 돌산중앙초등학교가 전남교육청의 '폐교를 지역민에게' 정책에 따라 돌산365가든이라는 이름의 공감쉼터로 재탄생했다.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여수교육지원청은 최근 여수시 돌산읍 옛 돌산중앙초등학교 현지에서 '마을과 함께하는 공감쉼터' 조성사업 열림식을 열고 새롭게 조성된 돌산365가든을 공개했다.

전남교육청과 여수교육지원청은 학생수 감소로 2007년 폐교된 뒤 지역의 흉물로 남아 있던 옛 돌산중앙초등학교를 '폐교를 지역민에게'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 지난 5월부터 사업을 진행했다.

잡초 무성한 폐교부지가 4계절 테마형 꽃밭·산책로·휴게공간·포토존(벽화)

등 공감쉼터로 탈바꿈해 지역민 곁으로 다시 돌아왔다.

산뜻하게 도색된 본관동 건물 외벽 돌산(DolSan)365라는 문구는 옛 돌산중앙초 졸업생들의 추억을 되새기고, 여수 앞바다에 자리한 크고 작은 365개의 아름다운 섬을 상징한다. 이곳을 찾는 모든 사람에게 365일 개방해 힐링과 휴식을 제공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돌산365가든이라 이름 붙여진 이 공감쉼터는 마을 이장단과 지역민 설명회, 여수시와 시·도의원 협의회를 통해 모인 의견을 반영해 조성됐다.

장석웅 전남교육감은 "이곳은 전남교육청과 교육공동체 모두가 힘을 모아 추진한 '폐교를 지역민에게' 정책의 첫 결실이자 성공적인 모델이라 할 수 있다"며 "폐교가 지역사회의 구심점이 되고 새로운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김태수 기자

광주문화재단

'아트날라리' 내일 개최

광주문화재단은 오는 2일부터 7일까지 6일동안 빛고을아트스페이스와 소촌아트팩토리에서 문화예술교육축제 '아트날라리'를 선보인다.

'과수원길, 위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동네예술배움터' '토요문화학교' '창의예술학교' '거점예술배움터 조성사업' '유아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사 역량강화사업' 등에 참여한 53개 단체가 온라인소극장, 공연, 체험, 전시 등의 무대를 선사한다.

개막식은 참여단체들의 활동이 담긴 영상이 상영되며 '온라인소극장'은 문화공동체 아우름의 '인생자서전'이 공연된다.

또 김옥진이 진행하는 '우리 똑똑해요' 토크쇼가 진행된다. 개막식과 온라인소극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 된다.

/광주=김태수 기자

'코세페 with 경북', 다채로운 행사 '풍성'

지역 관광 홍보 연계

경북도가 1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정부의코리아세일페스타에 맞춰 '코세페 with 경북'이란 주제로 다양한 소비촉진 행사를 벌인다.

도는 이 기간이 코로나의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시기와 맞물리는 중요한 시점으로 보고 온라인 위주로 상품 판매와 지역 관광 홍보를 연계해 다채로운 행사를 추진하고 소비심리를 살린다는 방침이다.

먼저 네이버 '경북 전통시장 특별관' 개설 기념으로 네이버 쇼핑 라이브 채널에서 안동 한우, 구룡포 햇과메기, 풍기 홍삼액 등 19개 전통시장 우수상품을 27회에 걸쳐 특가 판매를 한다.

이 행사에서는 전통시장 우수상품을 10~30%로 할인 판매하고 쿠폰증정, 배송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선보인다.

이 기간 도내 각 지역에서도 다양한 소비촉진행사가 펼쳐진다.

포항 과메기축제와 연계해 GS더프레스시 2개 지점(서울, 포항)은 과메기 20% 할인판매를 한다.

또 경주 중심상가의 '통큰 세일 경품대전', 구미팜의 농특산물쇼핑몰 할인쿠폰 지급, 문경 점촌산권활성화구역의 '할인 꽃이 피었습니다' 등 지역별 특색 있는 온·오프라인 행사가 펼쳐진다.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소상공인 제품의 온라인 판매기획전도 진행돼 경북 세일페스타 입점채널인 마켓컬리, 티몬, 위메프 등은 중소기업 제품에 대해 최대 20% 할인쿠폰을 지원한다.

공공배달앱 '떡깨비'는 11일부터 3일간 3000원 할인쿠폰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코세페 with 경북' 행사로 움츠렸던 소비가 되살아나기를 희망한다"며 "경북에서 세일의 기회를 꼭 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북=김태우 기자